

제주도의 전통적 출산관리에 관한 연구*

강 문 정**

I. 서 론

여성은 하나의 문화와 그 하위 문화, 사회, 그리고 다른 인간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생활한다. 여성은 자신이 속한 개인적 사회적 맥락 안에서 건강을 추구하고 그러한 맥락 내의 관계가 건강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문화적 환경(sociocultural milieu)과 생활 양식은 상실, 동통, 기쁨, 질병, 그리고 죽음의 사건을 겪는 동안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 책임, 태도 그리고 기능 양상을 결정하고 반영한다(Bobak: 1989). 출산은 한 여성의 삶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건강의 한국면을 나타내는 문화적 산물로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인간관계, 가족과 혈족관계, 그리고 민속요법 측면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Bobak: 1984).

예로부터 한국 사회에서의 출산은 전통적으로 정상적이며 건강한 경험이고 또한 가족적이며 사회적인 경험으로 간주되어 왔음을 알 수 있고(Sich and Kim: 1978) 전통적으로 출산관리는 가족이 담당해야 되는 것으로 가족은 그 가계를 따라 전승되어 온 문화적 인식, 가치관, 풍습에 따라 출산의 전 과정에 걸쳐 건강관리를 결정한다(방매륜; 1983)

그러나 최근의 한국의 간호사들은 서구화된 현대의 학 및 간호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아 모아를 환자로서 인

식할 뿐 아니라 출산을 외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는 간호사들이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오는 출산관리 체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과거 및 현재의 역할을 간과하여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원시적 혹은 미신적이라고 매도해버릴 수 있는 것이다(고성희 외: 1990, 방매륜: 1983). 즉, 어떠한 건강관리 체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역사의 산물이며 특정한 환경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며 계속 변화하는 것이므로 (Capra: 1987) 간호사들이 이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Leininger(1978)에 의하면 현대의 의료 전문 체계가 사람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전문적인 의료체계가 도입되기 이전의 오랫동안 존속해 온 민간을 돌보는 민간 건강관리 체계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한 이런 민간 건강관리 체계가 전문 의료 체계의 도움을 받기 전에 일차적인 도움의 출처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윤순영(1979)의 현대 의료와 한국 농촌의 의료 문화 비교에서 출산 관리에 대한 현대 의학의 개념과 전통적 개념은 부합되지 않으며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아마 다른 어떤 연구분야보다 넓다고 지적하였고 방매륜(1983)은 한국의 전통적 출산 문화에 기반을 둔 출산의 과정을 통한 간호는 가족을 포함한 대상자에 의해 서구적인 의료 행위에 기반을 둔 간호보다 더 받아들여질 수 있고 만족한 것으로서 지각될 수 있다는 이론적 진술을 발전시켰다.

* 이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 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 육성과제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한라전문대학 간호과 조교수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한국의 전통적인 출산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돌봄의 행위를 발견하여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규명하는 것은 간호 대상자의 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한 민족과 언어로 구성된 사회에서의 하부 집단간의 문화적 양상은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기욱: 1989).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하위 문화로서 제주도의 도서적 환경에서 전통적인 출산에 관한 건강관리를 조사하여 출산에 관한 돌봄 행위, 그리고 돌봄 행위의 의미와 원리를 규명하여 한국의 문화에 적합한 모성 간호 이론을 정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 간호 실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 대상자간의 갈등의 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간에 찾아볼 수 있는 관습적인 행위 및 행위의 산물로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습득되어 전승되는 것이다. 인류학자 W.H. Goodenough는 문화를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서 관찰된 행동 그 자체(patterns of behavior)가 아닌 그런 행위를 위한 또는 그런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의 체계(patterns for behavior)라고 정의하고 인간은 이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한상복 외: 1986). 즉, 인간은 자기 그 사회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전통 또는 규칙을 습득하여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건강과 질병, 정상과 비정상, 건전과 불건전이 무엇인지는 문화에 따라 상이하고 더 나아가 인간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느냐 하는 방법에도 문화적 내용이 영향을 미친다(Capra: 1987). 어떤 사회든지 건강과 질병과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해석되고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특정한 지식과 신앙체계, 역할, 의료행위 및 조직적, 사회적인 행위가 포함되는 일종의 문화현상인 것이다(한상복 외: 1986). 그러므로 인간의 건강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 증상을 표현하는 양식, 건강 관리를 부탁하는 시기와 대상, 치유자들이 제공하는 설명과 치료방법, 이 모든 것들은 역시 그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 의해 강하게 지배받는 것이다(Capra: 1987).

이와같이 문화란 인간의 건강과 질병 그리고 치유에

대한 태도와 관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인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질적인 삶을 보장하는데 목표를 둔 간호의 주요 개념인 인간, 환경, 건강 및 돌봄, 역시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는 논의될 수가 없는 것이다.

간호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적 욕구를 고려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돌보는 가치와, 신념,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Leininger(1987)의 이론적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문화에 따라 다양한 돌봄유형과 돌봄행위가 존재하여 고유의 돌봄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출산에 있어서 횡문화적 다양성(cross-cultural variation)은 인간관계, 가족과 혈족관계, 그리고 민속요법 측면에서 나타나고(Bobak: 1984) 모든 문화권에서 출산은 주산기의 각 단계별로 기대되는 규범과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출산을 질병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위험에 고도로 민감한 시기로 보며 어떤 문화권에서는 가장 약한 시기로 본다. 또한 건강관리 측면에서 보면 어떤 문화집단은 산전기간의 건강관리를 강조하고 다른 집단은 진통과 분만 또는 산욕기를 강조한다(Bobak: 1989).

또한 출산 중의 돌보는 행위에 있어서도 그 방법과 기술이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Johnston: 1980).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 따르면 출산은 건강한 과정으로 간주되고 출산기간은 가족 구성원끼리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게 하는 가족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즉, 이 기간동안 가족은 임산부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안정을 제공해 주어 가정을 구조적 기능적으로 강하게 해주는 것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관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Sich and Kim: 1978). 그리고 이러한 전통문화가 출산기간 중 태아와 어머니의 건강, 그리고 어머니와 아기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태아 및 아기와 젖에 위험한 부정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신(神)과의 관계와 출산 전 과정의 책임을 가족이 맡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풍습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방매륜: 1983).

그러나 윤순영(1979)은 출산에 관한 전통적인 개념이 현대의학의 개념과 부합되지 않고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그 간격이 넓어 문화적인 격차(cultural gab)가 있음을 밝혔다. 더욱이, 서구의 간호교육을 받고 서구식 보건의료에 익숙해 있는 오늘날의 간호사는 문화적 배경에 따른 건강과 돌봄에 대한 가치, 신념,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 사고(思考)하지 않고 현대의료만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전통적으로 전승

되어 오는 토속적인 건강행위를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라 하여 무시해 버리므로서 간호사의 지각과 대상자 지각 사이의 커다란 격차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사는 간호에 대한 간호사의 개념이 아닌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간호의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대상자의 문화적 관점에서 간호의 인식, 가치관, 행위에 대한 이론, 개념, 연구를 위하여 Leininger (1984)는 인류학과 간호학의 새로운 접목을 시도하여 민족간호(ethnonursing)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간호연구는 논리적 지지, 객관성 및 양적인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인간의 가치와 경험을 다루는데 매우 소홀히 하였다. 그러므로 간호 연구가 문화에 따른 집단에서 전송되고 정의된 돌봄 행위를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돌봄의 체계를 밝히는 일은 대상자의 전인적인 간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존속해 온 인간의 건강관리는 특정한 환경과 문화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여 계속 변화한다(Capra: 1989). 이러한 맥락 속에서 건강관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 혹은 하위문화(sub-culture)에 속한 인간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신념, 그리고 행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접근으로서 민족 간호연구(ethnonursing)방법이다. 이 방법은 민족 과학 방법을 간호의 준거 틀에 맞추어 이론과 연구에 있어 약간 수정시켜 파생된 것으로서 문화 집단의 간호 혹은 돌봄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그 지역 혹은 토착민의 견해, 신념, 실무를 확인 할 수 있다(최영희; 1989).

본 연구는 Ethnonursing의 조사 방법인 현지 조사 방법 가운데 면접만을 이용하였다.

A. 연구 방법의 훈련

본 연구에서 사용한 Ethnonursing의 현지 조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타당도가 높기 때문에 신뢰도와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높히는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한상복 외; 1986).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의 중요하고도 유일한 연구 도구인 연구자는 연구 방법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의 훈련과정으로 연구자는 1989년도 석사학위 논문인 '일부 제주 지역의 전통적 산후 건강관리 실

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1988년 9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남제주군 성산읍과 대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분만을 경험한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산후 건강관리 내용과 그 실천 이유에 대한 현지 조사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90년 12월 20일부터 1991년 1월 10일에 걸쳐 '일부 제주 지역의 분만 중 전통적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의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북제주군 초침읍 함덕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분만을 경험한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과거 출산과정에서 수행하였던 건강 관리 내용을 집중적으로 면접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현지 조사에서의 친밀관계(rapport) 형성 및 유지, 공식적인 면접(formal interview)과 비공식적인 면접(informal interview)의 장점과 단점, 주요 자료 제공자(key informant)와 일반 자료 제공자의 선정, 현지 조사 기간 안배등을 습득 하였다.

B. 연구 지역 선정

연구 지역은 연구 주제인 제주도의 전통적인 출산 관리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잘 보존된 곳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다.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된 화산도(火山島)인 제주도의 취락은 대부분 용천수의 용출지점을 중심으로 해안지대에 집촌(集村)으로 발달되었고 일부는 내륙부에 산촌(散村) 형태로 형성되었다(제주도 교육 연구원: 1985). 해안지대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동, 서(東, 西)로 해안 일주도로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외부와의 왕래가 잦아 내륙부에 비해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에 비해 해발 200m-600m의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100여개의 부락들은 해발 300m-400m 고지에 개통된 산도도로와 해안 일주도로에서 각 마을로 운행하는 교통편이 불편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적은 편이므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

둘째, 마을의 역사적 전통이 깊고 과거에 사회 문화적 혹은 경제적으로 융성하여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곳을 선정한다.

셋째, 연구자와 연구 대상 집단의 관계 형성과 마을의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정보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넷째, 연구자가 연구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자료를 수집해야하므로 연구자의 왕래가 용이한 곳이어

야 한다.

위의 사항들에 적합한 곳을 선정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지역 사회 보건간호학 담당 교수의 협조를 구하고 제주도의 마을과 관련된 문헌과 자료들을 참조한 결과,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로 선정하였다.

금덕리(今德里)는 중산간 지대에 위치한 마을로서 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고 제주시에서 시외 버스와 중산간 지역을 순환하는 버스를 이용하여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이조시대부터 유림촌이라 하여 전통문화의 보존이 잘 되어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더욱이, 금덕리 보건 진료소의 진료소장은 진료소가 설치되던 때부터 재직하고 있어 마을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매우 적극적인 진료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연구의 진행에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C. 연구의 참여자

현지 조사의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 대상 집단의 사람들과 친밀관계(Rapport)를 형성, 유지하는 일은 현지 조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조사자의 임무이다(한상복 외; 1986).

조사지역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연구 대상 집단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고 연구의 목적을 쉽게 이해하여 연구 대상자에 대한 정보 및 친밀관계의 형성,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지역의 보건진료소장을 조사 과정에 참여시켰다. 진료소장은 금덕리에 보건진료소가 설립되던 1986년 7월부터 현재까지 6년동안 그 마을의 1차 진료를 담당해 오고 있어서 주민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진료 활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었다.

이 진료소장은 연구자에게 새로운 제보자의 선정과 각 제보자에 대한 건강 상태, 가정환경, 성격 등 연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연구 보조자로서 면접 과정에 참여하여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자를 소개하고, 연구 목적과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였으며, 면접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제보자들의 방언을 연구자에게 설명해 주고 제보자의 이야기가 연구 주제에서 벗어날 경우 연구자의 질문을 다시 상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연구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주요 제보자는 60세 이상의 분만을 경험한 여성으로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제보자들로 60대 1명, 70대 14명, 80대 4명으로 모두 19명이었다. 제보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전통적인 출산과정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90대 이상의 제보자들은 대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아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의 연구에 필요한 마을에 관한 자료는 그 마을의 부락지(部落紙) 집필을 준비하는 모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50대 주민과의 면접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D.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 대상자가 과거에 경험하였던 출산과정에서 수행하였던 건강관리로서 현지 조사에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행위나 사건이므로 면접을 통해서 제보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밖에 없다(한상복 외; 1986, 최인학; 1986).

자료는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여 짧은 시간동안에 수집하였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제주 여성 노동 중심의 발농사 위주로 생업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조혜정; 1988) 실제로 제보자들의 연령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하고 있어서 연구자가 제보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4시 이후, 혹은 비가 와서 밭에 나가지 못하는 날이었다.

지역 방문 시기는 1991년 12월, 5일간, 1992년 5월, 10일간, 1992년 8월부터 9월중 10일간이었다.

연구 지역을 방문하기에 앞서 보건 진료소장에게 전화를 통해 방문 일자와 시간을 약속한 후 연구 보조자인 본 대학 조교 1인과 함께 마을을 방문하여 보건진료소장과 그날 면접할 제보자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았다.

면접은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 그리고 보건진료소장이 참여 하였다. 보건진료소장이 제보자에게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의 방문 목적과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자는 제보자가 과거에 경험한 출산에 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는 자료임을 설명하고 제보자의 경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표명하여 면접의 분위기를 조성한 후 연구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응답을 유도하였다. 이때, 면접과정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 제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음료수와 빵등을 준비하였다.

면접에 소요되는 시간은 30분-40분이었다.

조사 초기에 제보자 5인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한 제보자가 질문에 응답하는 중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나, 자세하게 응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보자가 보충 설명하는 장점도 있었지만 면접을 시작할때 한 사람이 연구자의 방문 목적이나 질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자 서로 참여하기를 꺼려 면접 분위기가 조성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그 이후의 면접은 제보자 1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출산 과정중의 돌보는 행위의 유형과 그 의미는 제보자들과의 면접을 통해서 수집하였다. 그리고 연구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 문화적 배경에 관련된 자료는 관계기관의 행정자료와 군지, 지도, 그리고 마을지를 참고하고, 지역주민과의 면접을 통해서 보충하였다.

E. 자료의 분석과정

녹음된 원자료는 연구자와 보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듣고 대략의 윤곽을 파악한 후 서너차례 반복하여 들으면서 기록하였다. 이때, 사투리도 그대로 기록하여 자료 분석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적합한 표준어로 기입하였는데 사투리의 의미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보건진료소장의 도움을 받았다.

자료분석은 첫째, 기록된 자료를 출산 과정 중의 돌봄 행위로서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하여 카드에 기록하고 제보자별로 분류하여 제보자의 번호와 페이지를 적었다. 둘째, 출산과정을 임신 중의 돌봄행위, 분만 중의 돌봄행위, 산후의 돌봄행위의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셋째, 추출된 의미있는 진술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공통된 특성으로 묶어 범주화하였다. 셋째, 추출된 의미있는 항목 중 진술의 뜻은 같으나 진술한 표현이 다른 경우에는 그대로 기술하였다. 또한, 범주화 과정에서 원자료에서 같은 속성끼리 모아서 하위 구성요소(Sub-category)를 정하고 이들을 다시 통합하여 구성 요소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 과정에서 간호학 교수 2인에 의해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졌다.

IV. 연구 지역의 사회 문화적 배경

A. 마을의 자연 환경

연구 지역 금덕리(今德里)는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향파두리 성(城) 서남쪽 2km쯤에 위치한 경치좋은 절

산(寺山)과 맑은 샘(流水岩)이 있는 마을로서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서부 산업도로를 따라 1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중산간(中山間) 지대로 해발 300m에 자리잡고 있다.

이 마을의 남쪽을 감싸고 있는 <절산>은 절이 있었던 터전으로서 옛 팽나무와 무환자(無患子)나무, 대(竹)들이 우거져 펍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길명<염주나무>라고도 하는 무환자(無患子)나무는 펍 희귀한 나무로 지방 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이 절산에는 이목사(李牧使)가 폐사(廢寺)한 이후 이조 말(李弼末)에 와서 극락사(極樂寺)란 절이 세워졌으나 4.3사건(四.三事件) 무렵 애월면 고성리(涯月面 古城里) 향파두리 북쪽의 현 위치로 옮겨버려 현재까지 사찰이 없다.

옛부터 이 마을 주위에는 오방장군석(五方將軍石)이 흩어져 있는데 이 장군석(將軍石)이 부락을 잘 지켜줘 유행병(流行病)이 퍼질 때도 전혀 희생자가 없었다고 한다. 오방장군석(五方將軍石)은 남쪽에 코끼리 모양의 방석(方石), 동쪽의 입석(立石), 필형석(錐形石) 서쪽 역시 입석(立石)이 있으며 북쪽에는 수문장(守門將)격의 왕석(旺石)이 있다. 특히 동쪽에 있는 붓 모양의 입석(立石) 덕분에 이 마을에는 이조(李朝) 때 과거 급제(科擧及第)하여 벼슬을 지낸 분이 많았다고 한다.

이같이 많은 인물이 배출된 것은 절에 관련된 인물(人物)들의 왕래로 그들에 의한 영향, 또 선각자(先覺者)들에 의한 서당(書堂)의 영향등으로 미뤄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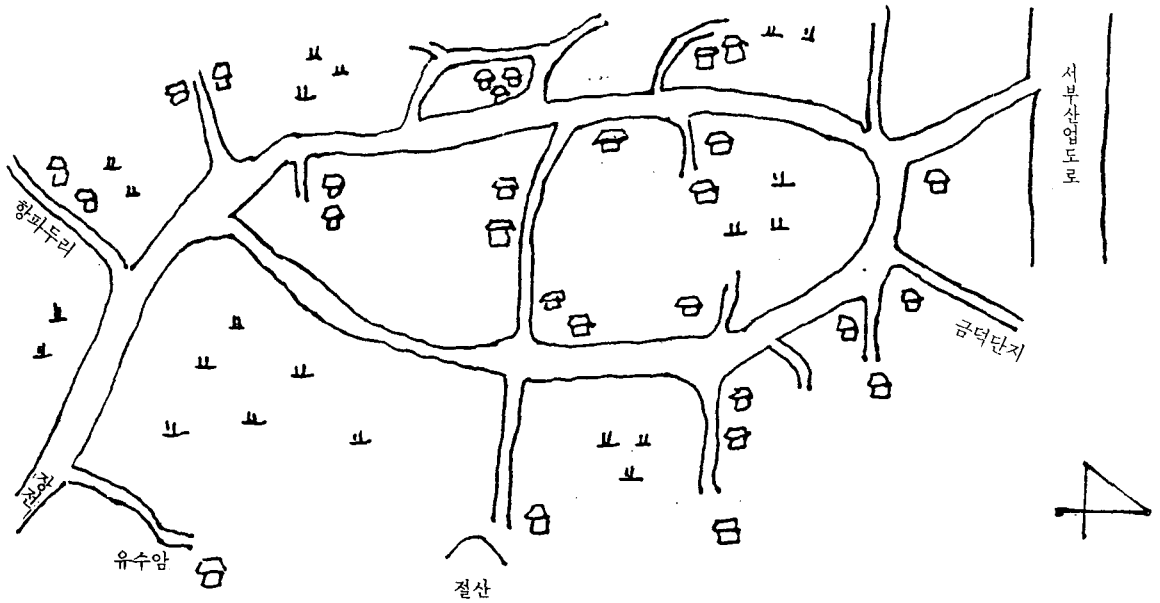
현재 금덕리(今德里)에는 5백여년 묵은 팽나무 고목이 50여분이나 우거져 도내에서 제일 큰 팽나무 군락지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절산 정상에서 있는 제일 큰 팽나무는 어머니가 아들을 품에 안은 형국을 이뤄 덕환(德患) 나무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이런 마을의 환경조성과 자연조건은 옛날 이 마을의 풍모를 충분히 엿보게 한다 (마을 지도 참조).

B. 사회 문화적 배경

금덕리 남쪽을 둘러싼 <절산>은 삼별초(三別抄)가 향파두리에 웅거하던 곳으로 지금부터 7백년쯤 전에 태암합용당(泰岩合龍堂), 일명 태암감당(泰岩甘堂)이라는 절이 있었던 곳으로 전한다. 이 절은 이조(李朝) 이형조(李衡祚) 목사가 당(堂) 5백, 절 5백을 없었던 시절까지 꽤 오랜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지방토우(地方土憂) 홍덕수 좌수(洪德秀座首)가 절산 북녘기슭에 이 마을을 설촌(設村)한 것은 지금부터 5



〈표 1〉 마을지도

백 10여년전인 이조성종(李朝成宗) 때이다.

이 마을은 지금 금덕(今德) 개척단지가 있는 속칭〈거문덕이〉를 상동(上洞)이라 하고 유수암(流水岩)이 있는 동네를 하동(下洞)이라 해서 꽤 오래 지속돼 왔다.

상동(上洞)은 항파두리성에서 김통정 장군이 멸망하자 몽고인들이 목마장을 만들어서 말을 먹이는 마장들을 데려와 살기 시작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동동(東洞) 용산동(龍山洞), 상원동(上元洞), 저지동(楮旨洞), 지서동(池西洞)등 5개동으로 군락을 이루고 현재 고씨(高氏)와 김씨(金氏), 강씨(康氏)등 15가구가 살고 있으며, 상동보다 뒤늦게 형성된 하동(下洞)인 유수암(流水岩) 부락은 절산을 중심으로 범이동(虎尾洞), 셋동(間洞), 지동(趾洞), 사산동(寺山洞), 전전동(前田洞), 닭동(畝洞, 논밭), 수동(水洞), 문전동(文田洞)등 8개동이며 강씨(姜氏) 26가구, 변씨(邊氏)등이 살고 있다.

개척단지 등 40가구를 포함한 이마을의 가구 수는 1백 72호이며 인구는 8백여명이다. 개척단지 입주자 30여호는 다른 지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 마을 행정 명칭이 금덕리(今德里)로 통일된 것은 이조융희연대(二朝隆熙年代) 상하동(上下洞)이 합쳐지면서였다.

제주시 성(城) 바깥 서쪽의 유수암에서는 이조 시대 때 8명의 판관(判官), 참판(參判), 좌랑(佐郎)등을 배출한 유림촌이었다. 이로 인해 한일 합방때에 일본인들은 이곳에서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산림 보호라는 미명아래 주재소를 설치하여 감시하였다고 한다. 일본의 초기 식민지 시대때 식민지 통치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의 서부 지역을 측량할 때에 유수암의 '금물덕(琴勿德)'이라는 이름 중 금(琴)자의 임금왕(王)을 빼고 금덕(今德)이라고 행정동명을 만들어 버리고 마을을 일구, 이구로 만들어서 정신문화 말살을 시도 하였는데, 그 후로는 인물과 재물이 없는 평범한 마을이 되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 지금에 와서는 옛 이름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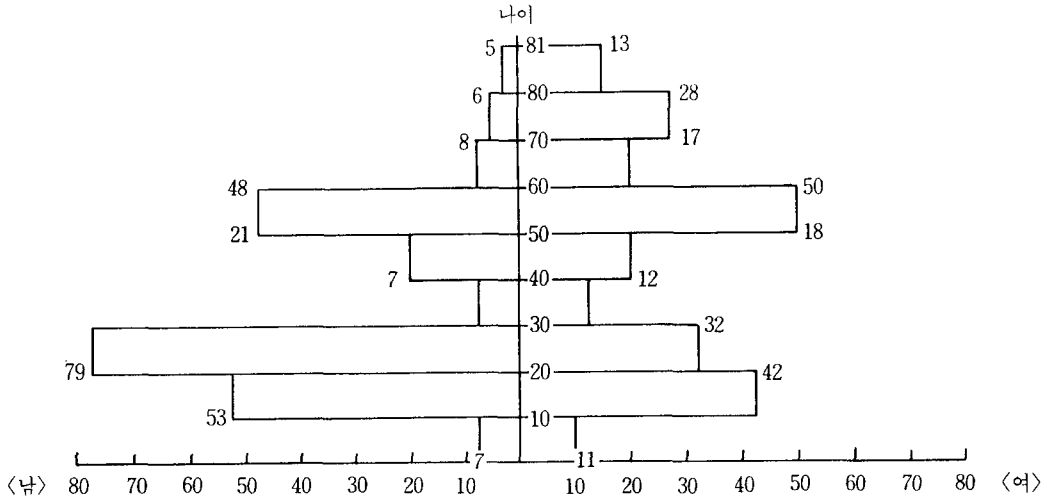
1948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지시된 중산간 지역 소개령에 의해 금덕리는 모두 불타 버렸고 금덕리의 주민의 다수는 외도, 하귀, 신·구엄, 수산등지의 해안 지방으로 피난 갔고 그 외에는 산으로 피난을 갔다. 1년 후인 49년 늦은 봄에 피난 갔던 주민들은 장전(長田)으로 올라와 함바집-역새나 피코 없어 만든 공동주택-을 만들어 집단 생활을 하였고 그 후 금덕으로 올라와서 불타버린 집터에 움막을 만들어 지냈다. 이 시기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하루에 30여명 이상

이나 되었다고 한다.

마을의 총 인구 수는 459명 (1991년 12월)으로 남자 234명, 여자 225명이다. 10세 이전의 아동이 18명, 10대

가 95명, 20대가 111명, 30대 19명, 40대 39명, 50대 98명, 60대 25명, 70대 34명, 80대 18명, 90대 2명이다(성별 연령별 인구도표 참조).

〈표 2〉 성별, 연령별 인구도표



가족 형태는 3대 직계가족 19가구, 노부부 가족 11가구, 중년부부 가족 17가구, 핵가족 49가구, 독거가 23명으로 핵가족에는 모자가족 5가구가 포함되어 있다. 독거가족과 노부부가족의 자녀들은 대부분 제주시로 나가 살고 있었다.

가옥의 형태는 한옥이 51가구, 스텔트나 슬라브 형태가 49가구, 초가가 20가구로 가옥의 개량 형태는 최근 2-3년 전에 이루어졌다. 건물의 외벽과 집 울타리는 공질(孔質) 현무암(玄武岩)으로 쌓았고 한 울타리내에 안거리 밖거리로 이루어져 있다. 건물의 내부 배치는 모두가 -자형으로 상방(마루)을 가운데 두고 구들(방)과 정지(부엌)가 양쪽에 놓여 있다. 그리고 마루에서 이어진 고광(庫房, 곡식 저장소)이 갖추어져 있으며 취사와 난방이 구분되어 난방을 위한 굴목(온돌방의 아궁이)이 독립공간으로 위치한다. 안거리는 대부분 3간(三間)으로 되어 있으나 밖거리는 구들과 정지, 그리고 작은 상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3대 직계가족 형태일때 부모는 밖거리에, 결혼한 자녀는 안거리에 거주하되 부자별거(父子別居)의 생활방

식으로 식생활을 따로 하고 있었다.

교육기관으로 과거 유림촌이라 불리워진 단قم 1세기 전에 서당이 세워져 이민(里民)을 훈학(訓學) 하었다고 한다. 전하여지기로 이찰방시절에 매원서당(梅園書堂)이 있었고 개화되면서 개량서당(改良書堂)이 마을 공회당, 도가집등에 설치되었다. 현재 마을 내에는 교육기관이 없이 국민학교 교육은 2km 떨어진 장전에 있는 국민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중·고등학생은 제주시 혹은 애월읍 소재, 한림읍 소재에 있는 학교에 통학한다.

마을의 주업은 과거에는 축산과 밭농사로 주요 작물은 보리, 콩, 모밀, 산두 등이었는데, 현재는 콩, 산두, 맥보리 농사와 축산과 감귤농사이다.

종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불교를 믿고 있다.

교통은 최근까지 제주시-수산-장전을 경유하여 오는 직행 시외버스가 운행되어 왔으나, 현재는 애월읍 관내 순환버스가 1시간-1시간 30분마다 1대씩 하루 약 20회 정도 운행되어 과거보다 교통이 매우 불편한 실정이다.

의료기관은 1986년 7월에 설치된 금덕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보건진료소에서 1차 진료를 받는데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시의 의료기관을 이용한다.

V. 연구결과 및 논의

여성이 일생동안 경험하는 여러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것은 임신과 분만의 진통을 경험하는 출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Standly and Copans: 1979). 이러한 출산과 관련된 돌봄행위는 그들이 속한 문화 속에서 그 특성에 따라 독특하게 나타난다. 즉,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은 그들의 건강가치(health value), 건강신념(health belief), 건강행위(health practice)의 중요 결정인자인 것이다(Leininger: 1978).

한국의 전통문화에 따르면 출산은 건강한 과정으로 간주되어 온 반면에 부끄럽고 비밀스러운 사건으로 가족 아닌 외부의 관여가 필요없는 것으로 흔히 생각한다(윤순영: 1979). 그러므로 출산관리는 가족중심으로 가족 중에서 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니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이들은 그들이 속한 문화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건강관리 방법을 수행한다(방매륜: 1983, 윤순영: 1978).

한국문화의 하위문화로서의 제주도 문화의 위치는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는 한반도 주변에 산재한 수많은 도서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기욱: 1989). 즉,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것, 한반도의 남부에 있어 기후적 조건이 다른 것, 섬이 화산도(火山島)라는 것, 그리고 크기가 지나치게 작지 않다는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이광규: 1984). 제주문화의 특징적인 면은 언어, 물질문화, 민속분야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유철인: 1984), 이러한 제주문화의 특수성은 여러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문화의 특성을 한국문화의 하위문화(sub-culture)로서 한국문화적인 것과 제주문화적인 것이 공존할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한국문화의 원리 속에서 특수문화로서의 제주문화가 존재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전통적인 출산의 돌봄행위를 논의하고자 한다.

A 임신 중의 돌봄

임신 여부에 대해서 대상자들은 대부분 신체적인 변

화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처음 임신한 때 육되게가 나니까 웬일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가 불러와서 알게 되었어...(A할머니).”

“몸에 것, 아기 가지면 안오지, 그거 안와가면, 말하지는 안해도 그런 걸로 알게 돼 (F할머니).”

임신은 월경이 중지되거나, 입덧, 복부가 증대되는 신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대상자 중 분만하는 날까지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임신한 줄 몰랐어, 아기 낳을 달 되어야...방에 누우니까 막 허리가 죽게 아파, ‘아이고, 이거 원 낮에 일을 좀 힘들게 했다고 이렇게 아플까... 아, 친정어머니한테 가서 허리 아파서 못 살겠다고 했더니, 친정어머니가 방에 누워 있으라고 해, 좀 있으니까 보리 짚을 가져다가 방에 깔아줘, 그래도 몰랐어(K할머니).”

위의 진술에서는 대상자는 물론 가족 역시 임신에 대해 무관심한 측면은 볼 수 있는데 이는 Sich and Kim (1973)의 연구와 고성희 외(1990)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임신은 성생활의 노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에(Sich and Kim: 1973, 윤순영: 1978) 임신 사실을 가족에게 직접 알리는 경우가 드물었고 가족은 대부분 간접적인 암시 또는 저절로 알게 되었다는 고성희 외(1990)의 연구 결과를 본 자료에서도 알 수 있다.

“지금 당장 임신헌겨, 부끄럽만 허고, 시집에도 부끄럽만 허고, 아무한테도 말 안했어, 남편에게도 정이나 좋으면 말하고, 정이나 안 좋으면 말할 필요없어, 차차 아기가 크면 배가 불러서 다 알게 돼(D할머니).”

“에에, 그런 말 아이고 부끄럽도 안해서, 어쩌다 남이 알까 허리 오그리며 다녔어, 잔뜩 허릴 묶어....., 할 아버지야 내가 하는 행동 보면 다 알지... 친정어머니도 모르고... 우리 시어머니는 아기 가진 줄도 모르고 아기 낳으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난 아기 뻔 줄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해(K할머니).”

임신 중의 돌봄 내용은 임신기간 동안 임신부의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부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부의 행동에 금기가 있었다(표 3참조).

<표 3> 임신 중의 돌봄 행위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원 자 료
정 성	조심하다	-방석도 반듯한 것에 앉고, 밥도 고운 그릇으로 떠서 먹고, 말 매어 놓은 줄 위로 넘어 다니지 말아야 해. -높은 담을 넘어 다니지 말아야 해. -자상한 노인들은 몸조심해야 한다고 했어.
	부정방지	-사람 죽은 곳에 가지 말고, 굶은 것은 보지 말아야 해. 굶은 것을 보면 부정 타니까. -스스로 정성해서 굶은 것을 안 보려고 해야지. -아기 가진 때는 어디 돌아 다니다가 굶은 할망 붙으니까 주의해서 다녀야 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굶은 것 붙어.

정 성

•조심하다.

임신기간동안 임부는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말 매어놓은 줄 위로 다리 넘겨서 다니지 말고 어떤 것을 보았을때 놀라지 말아야... (E 할머니).”

“높은 담도 가볍게 뛰어 넘어 말아야... 잘못되면 자궁이 약한 사람은 쏠아져 (K 할머니).”

임신기간동안 임신부는 조용히 기다리고 조심스러운 행동과 차분한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는 윤순영(1978)의 연구결과를 본 자료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임신부의 행동을 조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유산을 방지하여 임신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방지

임신기간동안 임신부는 부정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기사항이 있었다.

“이녀 정성으로 굶은 것 보지 말아야 해, 아기 갖은 때는 어디 들에 다니다 굶은 할망 붙어, 주의해서 다녀야... 우린 그걸로 망한 사람이라, 애기가 일고여덟달 되어서 옷을 때가 되면 갑자기 죽어버려(H 할머니).”

“굶은 것 보지 말아야 어디 뱀 죽은 거나 돼지 달아 맨 거... 사람 죽은 데도 가지 말아, 정성해야 돼(K 할머니).”

위의 대상자들의 진술에서 볼 수 있는 임신 중의 금기사항은 주로 임신부의 행동을 금기하는 내용들로 이는 지키지 않으면 부정이 탄다고 하였다. 여기서 ‘부정탄다’는 것은 ‘굶은 할망’이 ‘임신부에게 붙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 ‘굶은 할망’은 구삼신을 의미한다.

“구삼신은 아기를 가졌을때 그 아기가 내려 앉아버려서 아기가 없든가, 낙태되든가, 낳는다 해도 키우질 못해서 죽어버리든가, 그 아기 데려간 할망을 구삼

신이래 해... 구삼신은 삼신하고 틀려, 구삼신은 아길 못 키우게 데려가는 할망이고 아기 키워주는 할망은 삼신할망이야(S 할머니).”

“구삼신이라고, 굶은 할망, 옛날은 있었는데, 이젠 없어, 없으니까 좋아, 옛날은 열 아기 낳아서 다섯은 키우면 산천(山川) 좋은 집이야, 다 그걸로 죽었거든, 굶은 할망이 데려가...(C 할머니).”

삼신은 태신(胎神)인 동시에 산신(産神)으로 아기 점지와 출산을 담당하는 여신으로서(유안진; 1987), 산모의 고통을 덜어주고 아기의 건강과 성장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부정을 보거나 들으면 싫어하고 노여움을 나타내기도 한다(Guillemoz; 1975, 임동권; 1976). 삼신은 그 수가 몇이나 하는 점에 대하여 여러 설(說)이 있다. 즉, 하나 또는 둘, 또는 셋이라고 구구하게 전하는데(임동권; 1982), 본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삼신은 구삼신과 삼신, 둘로서 서로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 신(神)임을 알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임신부가 부정타는 행동을 하게 되면, 구삼신이 유산을 시키거나 태어난 아기의 건강과 성장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아기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서 구삼신의 존재는 매우 두려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임신부가 행동을 조심하고 금기하는 것을 임신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 언행, 마음, 감정등을 정화시키는 태교(한국어대사전 편찬위원회; 1976)와 같은 맥락으로서 태중(胎中)에 부정이 타면 태어날 아기의 장래 건강이나 팔자에 영향을 준다(강득희; 1983)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의 돌봄은 임신부의 행동을 ‘조심’하고 금기사항을 지켜 ‘부정을 방지’하는 구성요소로 파악될 수 있고 이는 임신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 ‘정성을 드리는 행위’로 나타났다.

B. 분만 중의 돌봄

한국 전통문화에서 분만은 서구의료의 Labor-Delivery와 달리 구별하기 어려운 단지 임신과 산육기 사이의 전이, 또는 임신의 종료나 아기의 출산이라는 사건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임신부는 분만 중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분만할 방에 들어가기 전에 벗어놓은 자신의 신을 다시 한번 더 쳐다본다고 한다(방매륜; 1986). 즉 출산은 여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한 가족의 어머니가 되는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부끄러워, 시아버님이 집안에 있으면 사뭇 ‘아이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모르게 하려고 꿰어 앉아서... (I 할머니).”

“사뭇 죽었다 살았다 해야지 (R 할머니).”

“막 낳을 때, 서너시간쯤은 말도 못해, 막 아파서 죽을

적에 이보다 더 아팠 죽을까 해서 참지... (D 할머니).”

“보리갈래 가려고 하니까, 기웃기웃 아팠. 옛날은 검질로 불을 지펴, 아픈게 덜 할 때 일어나서 불지피고, 아프면 다시 엎더지고 하면서 조반해두고... (K 할머니).”

위의 대상자의 진술에서 산고(産苦)는 죽음을 생각할 만큼의 위기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사회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산의 과정은 산모와 아기의 생사를 좌우했고 이러한 중요성때문에 전통사회다운 신앙체계에 따라 갖가지 출산 풍습이 창안되어(유안진; 1987) 출산의 전통적인 돌봄이 행해졌다.

분만 중의 돌봄은 산실 준비, 산부의 힘을 북돋움, 산을 위한 기원, 아기의 건강을 위한 정성, 그리고 산모의 회복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표 4참조>.

<표 4> 분만 중의 돌봄 행위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원 자 료
힘을 북돋운다.	자세나 접촉으로	-동네 어른들이 와서 등을 당기고 앞에서 밀어주었어. -남편이 등 뒤에서 무릎을 양쪽 허리에 대주고 손으로 오목가슴 밑을 쭉 눌러주면... -남편 무릎에 엎드려서 배를 꼭 눌렀어. -뒤로 안아서 배, 오목가슴을 꼭 당겨 안으면..... -배나 엉덩이를 살살 쓸어주면 쉽게 낳아. -아기 낳으려면 꿰어 앉아서 낳아야지, 누워서 낳으려면 더 못 견디.
	물건에 의해 힘을 내게한다	-문을 열어 켈 모서리를 꼭 잡아서 앉고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의지하여 주고. -누워서 뒹굴다가 문지방을 잡아 당겼지. -큰 바구니에 빨래감을 담아서 얹어놓고 짊고 앉아서 낳지. -구덕에 엎드려 의지해서 힘을 쫘. -친정 어머니가 구덕에 엎드렸을때, ‘힘주라, 힘주라’고 했어.
	차극을 주어 힘을 내게한다.	-아기 방식이 잘 안 나오면 머리끝을 손가락에 감아 목구멍 속으로 찌르면 구역질이 나오는데, 기운나게 하려는 거야. -머리칼을 손가락에 빙빙 감아 입 속으로 집어 넣으며 ‘웁’하면서 힘이 나서... -아기 낳을 때는 앉아서 낳아야 힘주기가 좋아.
	음식으로	-기름 데워서 먹고, 생 달걀도 아기가 미끈하게 쉬이 나오라고 먹이지.
정 성	부정방지	-아기 방식은 사흘 후에 터진 방에서 태우고... -남편이 삼거리에 나가서 태웠어. -밤중에 사람이 보지 않을 때 태워야 좋아. -삼거리에 나가 반듯한 데서 태워야지. 돌이 박힌 땅에서는 안돼 -아기 방식 잘못 태우면 아기 몸의 피가 끊어져.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터진 방향에서 잘 태워야 아기가 잘 크지.
	조 심	-배똥줄은 실을 두곱해서 묶고 길게 잘라야 해. 그래야 아기 수명이 길어. -배똥줄은 실을 서너곱해서 묶어야 아기가 아프지 않아. -배똥줄은 아기 몸쪽으로 확확 훑으지 않으면 오줌이 잦아. -아기 방식이 나오지 않을 때 태줄을 자르면 아기 방식이 자궁 속으로 올라가 죽어버릴지도 몰라. -태줄을 잘랐는데 아기 방식이 안 나오면 태줄 끝에 물건을 묶어 뒤야 해.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원 자 료
순 산	기 원	-아기를 늦게 낳을 것 같으면 열쇠 삶은 물을 먹었어. -아기 낳음이 어려우면 심방 데려오고, 삼승할망도 데려다가 빌어줘야지. -아기 낳음이 어려우면 깻문이나 문들을 다 열어야 돼. -문지들에 물을 데워서 끼었고..... -출산이 빠른 사람을 데려다가 빌면 빨리 낳아. 그런 사람은 문만 열어도 아기 엄마가 아기를 빨리 낳지. -아버지를 보아야 낳을 아기인데,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는 남편의 바지를 배에 덮어야 돼. -친정 어머니는 아기 낳기가 어려워서 내가 아기 낳을 때는 더 지친다고 일부러 오지 않았어.
	따뜻하게 한다	-몸이 차면 늦게 낳아. 몸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 빨리 낳지.
	도와준다	-우리 시어머니가 옆에 있어 주었어. -아기 낳으면 나는 높고, 시어머니가 배똥줄을 자르고 했지. -아기 낳으니까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었어.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어.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와서 해 줬지.
회 복	치 유	-아기 방식을 깔고 앉아야 하문(下門)이 빨리 붙거든. -아기 방식을 깔고 앉지 않으면 아래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해.
준 비	준비하다.	-보리짚을 깔아야 아기가 나와. 없으면 빌려다가 깔아야 해. -방바닥에 보리짚을 깔았지.
인 내	견 디 다	-죽을 적에도 이보다 더 아프랴 하고 생각했어. -아기 낳으려면 죽었다. 살았다 해야지. -그냥 배가 아파서 방에서 뒹굴다보니까... -부엌에서 배가 아파왔어. 아프면 얼드리고 괜찮으면 다시 불을 지피고 했어. -밭에서 배가 아프니까, 죽을 것처럼 몸서 아프면 쉬었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일하 고. -부끄러워서 시아버님이나 계시면 '아이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그냥 꿇어 앉아서 모 르게.....

● 산실준비

출산의 통증이 시작되면 방에 보리짚을 깔아 해산할 준비를 하였다.

“보리짚 깔았어, 보리짚도 한 아름 뽑아다 방에 깔아, 굵은 물 쏟아져서 더러워지면, 그 자리만 걷어두고 다시 깔아 (E 할머니).”

“방에 보리짚 깔안, 보리짚 깔지 않으면 애기도 안 나 올라고 해, 없으면 빌어다가 깔아, 시어머니가 깔아 줬지 (F 할머니).”

“허리가 아파, 내가 허리 아파 하니까, 남편이 아기 낳을 걸 알고, 밖에 보리짚 뽑으러 갔어... (G 할머니).”

위의 대상자의 진술에서 시어머니가 남편이 보리짚을 방에 깔아 출산을 위한 준비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방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짚은 더럽혀졌을 때 쉽게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짚을 까는 것은

아기의 출생을 돕고자 하는 기원의 의미도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고성희 외(1990)에 의하면 짚은 농경사회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재료로 위생상 사용한 것이고, 짚은 토지를 의미하고 곡식의 수확과 인간의 출생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여 태어나는 아기에게 하롭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힘을 북돋운다.

● 자세나 접촉

자세나 접촉으로 산부가 출산 중 취하는 자세는 문화나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Robert; 1979). 고대로부터 수세기 동안 진통 및 분만과정 동안 앉은 체위(sitting position)를 취하거나 쪼그리고 앉거나(squatting position), 무릎을 꿇는 체위(kneeling position)을 취했다(Newton and newton; 1960).

“이렇게 등 뒤로 안아서 배 오목가슴을 꼭 당기기도

하고, 남편 있을 때는 남편 무릎에 엎드려서 남자 무릎으로 오목가슴에서 배꼽 위로 쏙 눌러주면 ... (I 할머니.)”

“바구니에 옷가지들을 잔뜩 담아서 꿰어 앉아서 바구니에 엎드려 아기 낳으려면 꿰어 앉아 낳아야, 누워서 낳으려면 못 견디, 힘 주는 것도 앉아야 좋아 (S 할머니.)”

위의 진술에서 대상자들은 출산 중에 무릎을 꿰고 앉아 남편이나 시어머니와의 접촉이나 지지에 의해 힘을 주기가 쉬운 자세를 취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최근에 분만시 수직체위를 취하는 것이 분만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태아 상태의 이상을 감소시켜 준다는 연구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Lin; 1974). 뿐만 아니라 수직체위는 산부의 편안함을 최대화 하여 주고 자궁수축을 강화시켜 준다(Mckay; 1980). 강문정(1990)의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에서 출산 중의 자세를 조사한 결과에는 대상자들이 쪼그리고 앉아서(Squatting position) 문지방을 잡는 자세를 볼 수 있었는데, 이 자세 역시 골반출구(pelvic outlet)를 넓히고 산부의 미는 힘(bearing down effort)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여(Mckey; 1984) 분만기간을 단축시켜 준다.

• 물건에 의지하여 힘을 내게 한다.

출산 중 힘을 내기 위해서 대상자들은 물건에 의지하였다.

“아이 낳은 때에 무슨 바구니 같은 것을 짚고 앉아서 낳지, 집안에 사람이 없었어, 다들 일하러 가버리니까 허리 잡아 줄 사람도 없이... (M 할머니.)”

“옛날은 요렇게 꿰어 앉아서 벽장이나 뒯을 잡고 매달려서 힘을 써 (I 할머니.)”

“문 열어서 그 모서리를 꼭 잡고 앉아,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받쳐주고...(G 할머니.)”

위의 진술에서 대상자들은 바구니나 문 모서리등을 잡고 힘을 냈는데 특히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더욱 의지할 물건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 자극을 준다.

출산 중 산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출산을 도와주는 사람이 산부에게 자극을 주기도 하였다. 특히 태반의 만출이 늦어질 경우에 자극을 주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태반 만출은 분만을 도와주는 사람이 힘을 줘서 배를 눌러주면 쉽게 만출되었다.

“아기 방식이 아기하고 같이 잘락 나와버리면 좋는데

..., 질긴 사람은 아기만 낳고 아기방식은 영 안 나와, 배를 안아서 힘을 줘 봐도 안나오고... 옛날 머리가 긴 때에는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빙빙 감아 어명 목구멍에 확 쫓렁... 그러면 욕지기가 나는 바람에 기운내라고... 아기 나오는 것보다 아기방식 안 나오는게 기가 막힌거라 (I 할머니.)”

“아기 낳고 똥 아기 방식이 아니 나와서, 이젠 배똥줄 꿰어두고, 그 배똥줄에 슬리퍼를 달아매었어, 그냥 놓아두면 배똥줄이 들어가버릴까봐서... (J 할머니.)”

“두번째 아기 낳 때, 아기가 잘락 떨어지고 다음은 그 피, 몽클락한게 나오난 아기방식 나온 줄 알고, 이젠 배똥줄 꿰고, 아기 눕히고..., 아기 방식 치우려고 보니까, 아기방식이 없어, 아이고 시어머니가 땀이 막 나고... 난 분수 모르고 왜 시어머니가 저렇게 했어, 다시 일어나서 앉으니까 시어머니가 막 눌러, 그때 아기 방식이 잘락 떨어졌지, 큰일날뻔 했어 (I 할머니.)”

위의 진술에서 대상자나 가족은 태반의 만출이 늦어지면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자극을 주는 적극적인 돌봄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태반의 만출이 늦어지면 제대를 결찰하고 제대가 다시 자궁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행위에서는 대상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볼 수 있다.

• 음식으로

산부에게 생계란이나 기름을 데워 먹이는 돌봄은 산부의 힘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의 특성인 매끄러움으로 태아가 매끄럽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을 볼 수 있다. 이는 경북 안동지방에서 산고트는 산모에게 날계란을 깨어 먹여 마치 닭이 달걀을 낳듯이 쉽게 아기가 낳으라는 의미(유안진; 1987)와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

• 부정 방식

출산 후 태반의 처리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대상자의 가족 중 남편이 정성을 들여 처리하였다.

“옛날은 퇴비 담은 그릇에 애기보를 담아 머리맡에 두었다가 사흘만 되면 그걸 태워... 남편이 삼거리에 나가서 터진 방(方)에 가서 태우고, 어디 박힌 돌 위에서는 태우면 안돼, 돌 밑에 개미가 있어서, 태운 애기보에 개미가 생기면, 아기가 커 가면서 머리에 부스

럼 나, 애기보 태울 때는 잘 해야 해... (A 할머니).”
 “망태이에 담아 두었다가 사흘만에 터진 방에 가서 태
 왔지, 태워서 단단하게 잘 타면 아기도 잘 크고, 태워
 서 부스러져 버리면 그 애기도 안 좋아(E 할머니).”
 “요만큼 단단하게 태운 걸 잘 놔둬, 그게 좀 먹으면 아
 기 살지 못한다고 해 (F 할머니).”

위의 진술에서 대상자들은 태반을 처리하여 그 결과
 를 보고 아기의 건강을 예측하고 아기의 건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막히지 않는 방향, 길이 세 갈래로 난
 곳, 그리고 돌이 박히지 않는 편평한 곳을 선택하여 아
 기에게 탈이 없도록 정성을 들여 처리하였다. 이는 다른
 지방에서도 태반이 부정타는 것을 꺼려하여 액이 없는
 방향에서 태우거나 묻는 것(고성희 외; 1990, 임동권;
 1976, 유안진; 1987)을 볼 수 있는데 제주도의 해안지방
 에서는 태반을 알맞은 그릇에 넣어 뚜껑을 닫고 남몰래
 바다에 던지기도 하였다(강문정; 1990).

• 조심

아기를 출산한 후 탯줄은 먼저 산부나 가족이 손으로
 탯줄을 잡고 아기 쪽으로 훑어서 피가 많이 흘러 가도록
 한 후 탯줄을 아기 배꼽 쪽에서 한 뼘쯤의 위치에 실을
 두서너곱하여 묶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위로 잘랐다.

“배똥줄은 한뼘 조금 더 남겨, 가위로 잘랐어, 실로 묶
 지, 피나지 않게 두곱해서, 그 실도 길게 해야, 목에
 감겼던 배똥줄은, 손으로 훑어... 배똥줄은 일찍 떨
 어지는 아이도 있고, 빨리 떨어지지 않는 아이도 있
 어, 오래 가는 아이가 명이 길어... 떨어진 배똥줄은
 보관해 뒀, 놔두면 좀 먹은 것도 있고, 오래 되어도 생
 생하는 것도 있고, 좀 먹으면 아기가 탈이 많아(E 할
 머니).”

“배똥줄은 첫 아긴 할망이 자르고 다음 아기 부터는
 이녀대로 가위로, 아기 몸쪽으로 확확 훑으지 않으
 면 오줌이 잦아... 실로 서너곱해서 묶어야 아프지도
 않고, 다음에는 자기대로 다 하게 돼 (F 할머니)”

위의 진술에서 대상자들이 아기의 탯줄을 자를 때 제
 대의 혈액을 아기 몸쪽으로 훑으는 행위는 아기를 보
 補하는 (고성희 외; 1990)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
 고 대상자들은 탯줄을 절단할 때의 탯줄의 길이, 탯줄이
 떨어지는 시간, 그리고 보관한 탯줄의 상태는 아기의 건
 강을 예측하고 아기의 수명과 관계된 것이라 생각하여
 탯줄을 묶어 절단하는 과정과 떨어진 탯줄을 보관하는
 데 매우 조심하였다. 즉, 탯줄은 바로 아기의 생명과 직
 결되는 것으로 소중히 다루었다. 떨어진 탯줄관리는 자

문화마다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탯줄을 정성스럽게 싸
 서 상자안에 넣어 두거나 집안의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
 해 두었다가 죽을 때 같이 매장한다. 동양 문화권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의 실제 가정은 탯줄이 있는
 곳이라고 하여(Bobak; 1984) 탯줄 관리에 상징적인 의
 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했다.

순산

• 기원하다.

출산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때는 가족 아닌 외부 사람
 의 도움을 받거나 삼신에게 기원하고 순산을 위한 상징
 적인 행위를 하였다.

“문 열어버리고, 열쇠 삶은 물을 먹이고... (A 할머
 니).”

“아기 낳음이 어려운 때 손으로 궁둥이도 쓸쓸 쓸어주
 고, ‘아이고 몸 보든 할머니, 열두케문 열어서 아주
 늦은 것은 빠르게 아주 빠른 것은 늦추고, 제발 열두
 케문 열어줍서’ 아기 어멍 아길 낳젠허는디 그렇게
 빌어줘, 얼마 없으면 아길 낳아, 우린 막 빨르게 아기
 낳아, 우린 가서 방문만 열어가도 아기 낳아, 아기 어
 멍 배를 쓸어보면 아래로 아기가 내리고 안 내리는
 것 쉽게 알 수 있어 (H 할머니).”

“아기 아방 봐야 나올 아긴, 아방 없을 때는 아방 바지
 를 허리에 둘러싸고... (I 할머니).”

“막 오래되어 가면 삼승할망 데러다 빌고, 문지들에
 물 데왕 지치고... (M 할머니).”

난산일 때 대상자들과 가족들이 행하였던 행위들은
 다분히 민간주술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민
 속의학의 일부분으로서 굿이나 푸닥거리 주술적인 치료
 의식을 말하며 사머니즘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이
 부영; 1973). 출산이 늦어지고 어려울 때 가족은 제의
 문이나 집안의 문들을 열어놓고 열쇠 삶은 물을 먹였다.
 이는 분만 제2기때 아기의 머리가 질구(Vaginal orifice)
 를 통해 보이게 되는 순간을 한국의 민속적인 표현으로
 ‘문을 잡는다’라고 하는데(Sich and Kim; 1978), 아기
 가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임신부 주위의 문들을
 열어 놓은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만이 늦어
 지면, 출산을 도와주는 이웃 할머니를 가족이 청하였는
 데, 이 할머니를 ‘삼승할망’이라 불렀다.

그러나 이 ‘삼승할망’은 신(神)으로서의 ‘삼신할머
 니’가 아닌 단지 분만을 순조롭게 하기 위하여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이 ‘삼승할망’은 덕(德)이 있어서 ‘삼신’에
 게 순산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고 특히, 수덕(手德)이

있거나 과거에 출산을 쉽게 한 할머니는 임신부의 배나 등을 문질러 주면 쉽게 분만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민간들이 주술에 가까울 만큼 이 할머니의 수덕을 높이 평가하고 단지 옆에 있기만 해도 분만이 용이해진다는 관념에서 오는 것이다(제주도: 1982). 그리고 남편이 출타하여 없는 경우 남편의 바지를 복부에 덮는데 이는 남편의 옷이 있으므로 임신부는 남편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순산을 기원하는 민간의료의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에 의하는 것보다 의타적(依他的) 방법이 주로 되어 있다(임동건: 1982). 이런 행위가 순산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임신부의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고 긴장과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따뜻하게 한다.

“몸이 차면 늦어, 아기 늦게 낳아.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빨리 낳아 (N 할머니).”

위의 진술에서 순산을 위하여 임신부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돌봄행위를 볼 수 있다. 임신부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임신부를 이완시킬 수 있는 돌봄으로 순산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로 생각할 수 있다.

● 도와 주다.

“시어머니 돌아가셨어,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와서 다 해줬지(A 할머니).”

“애기 낳으면 시어머니가 다 배똥줄 그치고, 몰라 이 녀은 아기만 낳아볼면 들어 누워, 그러면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줬어 (D 할머니).”

“친정어머니가 아길 받았어, 난 구덕에 었디어 끊어 았고 어머니는 ‘힘주라 힘주라’ 했어 그러면 아기가 나와 (E 할머니).”

위의 대상자의 진술에서 시어머니 혹은 친정어머니가 분만 중에 임신부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며, 아기를 받고 탯줄을 자르는 등의 돌봄을 수행하였다. 물론 대상자들 중에는 돌보아 주는 사람 없이 혼자 분만을 한 경우도 있었다.

“혼자 낳았지, 다들 বলে 일하러 가고… (M 할머니)”

위 대상자는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아기를 낳았다고 하였는데 강문정(1990)에 의하면 ‘남이 분만사실을 알게 되면 아기를 낳기가 어려워서’ 혹은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부끄러워서’ 라고 혼자 분만한 이유로 대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혼자 아기 낳는 일이 어렵

지 않다’라고 말한 대상자도 있었는데, 이는 Sich and Kim(1978)의 연구에서 혼자 분만을 하였던 여성은 그녀 자신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로 부터 찬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일치하였다.

C. 산후의 돌봄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출산 후의 산후조리는 건강유지와 회복을 위해서 또 전에 았았던 질환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방매륜: 1983).

제주도의 산후 몸조리를 위한 돌봄에는 산모의 휴식, 회음의 치유와 유즙분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속을 삶아 산모와 아기가 목욕하는 행위, 산모의 피를 맑게 하기 위하여 메밀수제비를 먹도록 하는 행위,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하여 행동을 조심하고 금기하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정성을 드리는 행위, 그리고 유즙 분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원등의 내용을 볼 수 있다(표. 5 참조).

휴 식

“그자 이녀대로 때 해서 먹어질 정도 되면 일어나서 일하고, 나도 그 죽어버리고 하는 아기를 낳으면서 여드레만에 콩밭에 검질 매러갔어, 이렇게 앉아서 검질매니까 막 아래가 아판, … 옛날 할망들은 목숨이 끊어지지 았으면 이렇게 사는거… 그 어려운 시절 살려고 하면…(B 할머니).”

“아기 낳아서 한 3일 되면 몸이 가벼워서, 이제 일만 할 생각으로… 3일만 조심하면, 후탈이 았고 아프지나 았으면…(D 할머니).”

“사나홀 되어 태를 불에 태우면 일하려고 밭에 가, 태를 불에 태우기 전에는 아파서 못 나가…(M 할머니).”

Sich and Kim(1973)과 방매륜(1983)의 연구에서 산후 일정기간 동안 산모는 완전한 휴식을 취하는데 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리창이나 문을 닫고 몸을 따뜻하게 하여 7일에서 21일 심지어 3달까지 쉬었다는데, 이는, 분만과정 동안 뼈와 관절이 느슨해져 있기 때문에 정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 대상자들은 대부분 산후 3일동안 휴식을 취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시작하였다. 전통적으로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논농사에는 부적합한 토양이 대부분으로 제주농경은 ‘여성적 농경 체계(the female farming system)’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육지가 남성노동 중심

<표 5> 산후의 돌봄 행위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원 자 료
휴 식	휴식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끼니를 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일하러 나가야 했지. -사흘만에 일어났어. -태를 태운 후에 일하러 나가지만 그 전에는 아파서 일어나지 못해. -첫 아기때는 7일간 쉬었지만 두번째부터는 오래 쉬지 못했어.
	쭈을 이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쭈을 말려 두었다가 쓰기도 하고 생쭈을 쓰기도 하고. -단오날 해 둔 쭈이 제일 좋아 -오월 명절날 한 쭈이 약이 되어서..... -쭈은 시어머니가 안 제시면 자신이 준비하지. -쭈을 삶은 물 위에 앉으면 아래가 순해져. 그렇게 여러번 할수록 더 좋지. -쭈으로 목욕하면 회복이 빨라. -쭈 삶은 물로 젖 먼저 닦고 다음에 아래에 하고..... -아기는 삼베로 배 속의 때를 씻어야 목이나 겨드랑이가 물리지 않아. -아기는 깨끗하게 해 주어야 하루 탈 없이 잘 자라지. -아기는 쭈물로 목욕해야 빨리 굳어. -향물로 아기 입안도 깨끗이 씻어 주어야 입안이 험지 않아.
정 성	피를 맑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밀 수제비는 시어머님이 해 줘서 먹었어. 굶은 피를 빨리 삭히게 하니깐. -피 배 삭게 하려면 메밀가루를 날 것으로 해서 따뜻한 물에 타서 먹어야 해. -메밀가루를 따뜻한 물에 개어서 먹으면 굶은 피가 쭈 내려버리거든.
	조심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기가 어리니까, 아기 엄마가 굶은 것은 보지 말고 늘 몸을 조심해야 해. -금방 아기를 낳은 후에는 엉덩이를 들고 앉지 말아야 하고, 무거운 것이나 물 허벅을 들면 병이 나. -우리 친정 어머니는 아기 낳고 나서 불을 지필 때는 뒷박을 얹어서 깔고 앉으라고 하였어. -3일은 조심하고 3일 후에 일어나도록 했지. -아기 낳은 후에는 병 걸린다고 해서 몸 조심하라고 그래.
	금기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가 상하니까, 생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해. -생선 굶지 말고, 아기 얼굴에 뺨가 나가거든. -센 것이나 차가운 것을 먹으면 이가 상해. -돼지 고기는 좋지 않아서 먹지 말라고 해.
	부정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가 와서 액이 타면 아기 젖이 안 나와서 괴롭기도 하지. -동네 사람이 뭘 몰라서 '젖이 많이 나오네, 적게 나오네'라고 말하면 부정타서 젖이 안 나와.
	기원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젖이 3일 후에도 돌지 않아서 심방 데려다가 산에 가서 빌었어.

의 미작(米作)농업을 발전시켜 온 반면, 제주는 생태적으로 특히 토질과 강우량등에 있어 여성노동 중심의 발농사 위주로 생업을 발전시켜 왔다(조혜정; 1988). 이러한 여성 노동력 중심의 농경체계는 산모가 출산 후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 시키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산후의 짧은 기간의 휴식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 중에는 자신들이 발일을 해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현대의

젊은 산모들의 오래 휴식을 위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흘만에 일어나고, 그 사흘도 집에서 일해, 눕긴 뭘. 아기 낳으면, 막 시원해서 좋아, 막 돌아댕겨, 사흘 후엔 밥구덕 지고, 아기구덕 옆에 점심놓아, 한라산 밭에 올라가고, 요새 젊은 사람들 너무 놀아... (F 할머니)”

회 복

• 쑥을 이용한다.

출산 후 3일째 되는 날 산모가 아기는 쑥을 삶은 물로 목욕을 하였다.

“쑥 삶아서 그 물에 목욕하고, 아기 낳으면 아래가 험어서 쑥 삶아 갈아 앉으면 순해져, 여러번 해도 좋아, 우리 며느리들도 아기 낳으면 쑥 삶아서 목욕시켜...(B 할머니).”

“쑥은 단오날 해 둔게 제일 좋아. 우리 셋딸은 아기 낳은지 열흘된 때라도 쑥으로 목욕 안하니까 애기밥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해, 쑥을 문작하게 삶아서 목욕하니까 그 뒷날은 애기밥 돌아와... 쑥물로 아래 갈아 앉으면 회복이 잘되고, 애기도 쑥물로 목욕시키면 빨리 굳어, 한약보다 쑥이 제일 빨라...(E 할머니).”

“쑥이야 이년대로 해서 놔둬, 아기 가지면 아무 때나, 오월 명절날 해서 놔두면 그게 약이 돼(M 할머니).”

쑥의 준비는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부 스스로, 혹은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하는데 단오날에 뜬 것이 효험이 있다하여 제주도에서는 단오날에 뜬어 말려 두었다가 약초로 사용하였다(임동권: 1976). 한방에서 쑥은 애엽(艾葉)이라 하여 그 특성이 온평(溫平)하다(황도연: 1980). 그 작용은 항균(抗菌)작용이 있고(중약대사전: 1977) 자궁출혈을 지혈시킨다(중약대사전: 1977, 김정수: 1975). 그리고 귀사(鬼邪)를 몰아내고 태루(胎淚)에 가해도 좋다(황도연: 1980)고 기록되어 있다.

대상자들은 산후 3일째 되는 날 미리 준비해 둔 쑥을 삶아 목욕을 하고 깔고 앉아 회음의 손상된 부분을 치료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리고 쑥물로 젖을 닦아 유즙이 빨리 분비되도록 하고 태어난 아기의 건강과 성장을 위하여 목욕시켰다. 이들은 며느리들의 산후 회복과 유즙 분비 촉진을 위해서도 쑥물로 목욕하도록 권하였다.

• 피를 맑게 한다.

“모밀수제비는 시어머니가 해줘서 먹고...(B 할머니).”

“애기 낳면, 메밀가루 뜨뜻하게 해서 먹으면 굵은 피 내려버려, 그게 좋긴 해, 그게 최고라, 우린 이제도 핏배는 안 아파, 그때 막 내려버려서, 굵은 것 안 나와버리면 오랫동안 아파(F 할머니).”

본 진술에서 대상들은 출산 직후 메밀가루로 수제비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대부분 시어머니가 준비하여 메밀가루를 미역국에 타서 먹거나, 메밀가루를 뜨거운 물에 타서 먹는다(제주도: 1982). 현대의 산모들도 병원

에서 분만할 경우 시어머니가 메밀가루 수제비를 만들어 병원에 가지고 와서 출산 직후 며느리에게 먹인다(강문정: 1989). 메밀은 한방에서 교맥(蕎麥)이라 하여 그 특성이 달고 찬 것으로 오장(五臟)의 재적물(滓穢物)을 이기며 기(氣)를 보익(保益)하는 것이다(황도연: 1980). 기라는 것은 생의 에너지(energy)라고 할 수 있는데(이부영: 1978) 기의 흐름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므로 기가 적절하게 순환하지 않을 때는 불평형이, 즉 병이 발생한다(Capra: 1982). 이런 의미에서 메밀가루 수제비는 산모의 기를 보(保)하는 것으로 산후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지방과 달리 산모들이 주로 메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는 것은 제주도의 풍토적 조건으로 논농사가 거의 없고(2.7%) 조를 중심으로 한 피, 메밀, 두류(豆類) 재배가 주 농사로서(현용준: 1975) 제주도의 속작문화(粟作文化)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 성

• 조심하다.

“아기 어머는 조심허랜, 병 걸리니까 조심해야...(H 할머니).”

“곧 아기 낳은 때 엉덩이 들고 앉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물허벅을 들거나 하면 병 나는게 있어, 어걸이라고, 저 하문으로 어만한게 나오기도 하고, 조그만하게 나는 사람도 있고, 아기 어머는 그걸 제일 주의해야 해...(O 할머니).”

“우리 친정어머니가 자상하기로, ‘불 지필때는 뒷박을 얹어놓고 앉아서 해라’고 했어, 변소에 가도 조심하고...(J 할머니).”

대상자들은 출산 후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만일 대상자들이 산후에 조심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위의 진술에서 산후에 무거운 것을 들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게 되면 산후 합병증으로 ‘어걸’이 생기는데 이는 질(Vagina)을 통해 자궁이 하수되는 현상으로 자궁인대의 이완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 금기하다.

한국 농촌의 전통적 의료인식은 산모들로 하여금 산후 일정 기간 동안 부정이나 삼신할머니의 분노를 막기 위하여 음식과 행동을 금기하였다.

산후 산모는 행동의 금기와 음식의 금기를 지켜야 하는데 만일 금기를 어기게 되면 병이 생기게 된다(강문정

: 1989).

“이빨 상하니까 생초같은 것 먹지 말고 고기 굽지 말라고 해, 한 10일간은 부엌에서 고기를 굽거나, 볶음질이나 하게 되면, 애기 몸에 뽀족 뽀족하게 뭔가 난다고 해 (A 할머니)”

“센 것 먹지 말아야, 센 것 먹으면 치아 다 손나고, 찬 것 먹지 말고 (P 할머니).”

“돼지고기는 안 좋다고 해, 바닷고기는 먹어도 좋다고 해 (N 할머니).”

산후 대상자들이 금기한 음식은 ‘딱딱한 음식’, ‘찬 음식’, ‘생 야채’, 그리고 ‘돼지고지’ 등이다. 그 이유는 산모의 치아가 손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산후 10일간은 부엌에서 볶음질과 같은 조리 방법은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기의 얼굴에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금기는 출산 전 과정 동안 지켜야 하는데 특히 아기의 출생에 이르면 그 절정에 달하게 된다 (강득희: 1983). 출산과정에서 열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문화권에서는 음식을 통하여 열을 보충하기 위해 찬 음식을 금기하는데 과일, 푸른야채, 육류 등은 찬 성질의 음식으로 여겼다(Bobak: 1984). 그리고 금기를 어겨서 병이 생기는 것은 외계의 잘못된 탓으로, 신이 노해서 벌을 내림으로 질병이 생긴다고 믿는다(김광일: 1972).

● 부정방지

산후의 부정은 아기의 수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누구 애기 낳는데 와서 분수 몰라서 ‘젖이 많이 난다. 조금 난다’ 하면, 부정 타서 그 할마님이 노해서 젖이 안 나와 (J 할머니).”

한국 동촌에서 삼신할머니가 분노하게 되면 아기가 앓거나 젖이 잘 안 나온다고 믿는다. 이는 위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유는 삼신이 지배하고 있다. 만약 산모가 부정이 타게 되면 ‘삼신 할망’이 노해서 젖이 안 나오게 된다. J 할머니의 진술에서 외부 사람이 아기 낳는데 찾아와서 젖의 분비에 대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부정이 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상자나 가족, 그리고 이웃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언행을 조심해야 했다.

● 기원하다.

“젖이 안 돌아서, 심방할망 데려다 산물에 올라가서 ‘할마님, 아기 밥 타려고 와수다’라고 한 후에 물을 세 번 마시고 가슴에 세 번 물을 끼얹고, 두번 산에 가서 빌었어, 그랬더니 젖이 막 나와... 그래서 삼신할머

니를 무시못해(Q할머니).”

위의 대상자의 진술에서 산모가 부정이 타서 젖의 분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심방을 데려다 삼신할머니의 분노를 풀어버리는 기원을 하였다. 또한 삼신할머니의 분노는 아기를 앓게 하기도 하여 제주도에서는 삼신할머니의 분노를 풀기 위한 무속의례로 삼신할망 본풀이가 행해지고 있다(제주도: 1982, 제주도 교육 연구원: 1983).

산후 산모의 건강관리는 산후 합병증을 예방하고 미래의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다(박주봉: 1978, Summer and Firitch: 1977). 전통적으로 출산과정은 피를 흘리고 더러움으로 인하여 부정한 상태가 되어 산후 일정기간 동안 외부로부터 부정이나 잡귀가 침입하기 쉬우므로 부정이나 잡귀를 막지 못하면 신생아와 산모가 질병에 걸리게 된다(Guillemoz: 1975). 특히, 부정은 신생아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외부인이 집으로 들어오거나 가족이 부정 상태에 있는 외부 사람과 접촉하므로 씨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Sich and Kim: 1978).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 외부로부터의 부정을 막기 위해 남·녀의 상징을 표시한 금줄을 대문에 걸어 놓거나 대문 앞에 황토를 쌓아 놓아 외부의 왕래를 제한하였다(Guillemoz: 1975, 강득희: 1983, 유안진: 1980). 이에 대해 유안진(1980)은 의학의 미발달로 영아 사망률이 높았고 산모의 사망률도 높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금줄로 외부의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금줄 매는 일이 다른 지방처럼 일률적인 것이 못되고 흔히 생략되었다고 한다(제주도 교육연구원: 1983). 본 자료에서도 출산 후 외부인의 왕래를 제한하지 않았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제주도의 전통적 출산 관리에 내포되어 있는 돌봄행위와 그 의미를 파악하여 출산과 관련된 대상자의 신념과 가치, 행위의 유형등을 규명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적합한 모성간호 이론 정립과 효율적인 간호실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지역은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금덕리의 유수암 마을로 1991년 12월부터 1992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면접과 기존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제보자는 분만을 경험한 60세에서 84세사이의 19명의 여성이었고 마을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관한 자료는 50대의 마을 주민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자료분석은 수집한 자료를 출산의 하위 주제별로 분류하여 돌봄행위와 그 의미에 관련된 내용을 추출하여 특성별로 범주화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임신기간동안 대상자들은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부정하지 않도록 정성을 드렸다. 이와같은 임신중의 '정성을 드리는 행위'는 임부의 건강과 임신의 유지, 나아가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위함 돌봄이다.

분만과정동안 대상자들은 가족-주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또는 남편이 대상자의 자세를 지지하거나, 접촉하므로써, 혹은 음식이나 자극을 통해 힘을 북돋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족은 태어나는 아기를 받아주고 정성으로 태출을 자르고, 태반의 처리를 하였다. 대상자가 난산일 경우에는 대상자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외부사람을 데려와 순산을 기원하고 출산과 관련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 순산을 도모하였다.

산후의 대상자는 쭉과 메밀을 이용하여 출산과정에서 초래된 손상을 치유하였고 산후의 합병증 예방과 산모의 건강, 그리고 부정방지를 위해 정성을 드렸다. 특히 산후의 부정은 아기의 수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언행을 조심하고, 젖의 원활한 분비를 위해 삼신할머니에게 기원을 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출산관리에서 나타난 돌봄행위의 유형으로 '조심하다', '부정방지', '힘을 내게한다', '기원하다', '따뜻하게 한다', '준비하다', '견디다', '도와주다', '치유하다', '휴식하다', '쭉을 이용한다', '피를 맑게한다', '금기하다'로 13개의 속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속성들은 다시 '정성', '힘을 북돋운다', '순산', '회복', '준비', '인내'의 6개 범위로 범주화되었다.

출산과정동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돌봄은 '정성을 드리는 행위'로서, '조심하다', '금기하다', '부정방지', '기원하다'라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 그리고 출생한 아기의 건강과 장수를 위한 것이다. 과거 의학의 발달되지 않아 모성사망율과 태아사망율, 그리고 영아 사망율이 높았던 까닭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사람들은 민간주술적인 행위를 통하여 신(神)에게 의지하였다. 즉, 대상자들은 초월적(超越的)인 힘에 의존하여 임신부와 태아, 그리고 출생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출산과 관련된 돌봄은 가족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분만 중에는 산실을 준비하고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부터 태반의 처리까지 가족이 담당하여 전통적인 출산관

리는 가족 전체의 사건임을 시사한다. 이는 현대에 이르러 병원분만을 한 경우에도 산후 몸조리기간은 가족에 의해 돌봄이 제공되고 있어, 오늘날 우리사회의 출산 과정은 여전히 가족에 의해 제공되고 전통적인 돌봄행위가 있음을 알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현대 모성간호 이론과 간호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과 관련된 전통적인 돌봄은 임신부와 태아, 그리고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 이웃, 그리고 신(神)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현대 모성간호의 출산에 대한 접근의 범위보다 확대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출산과 관련된 전통적인 돌봄은 대상자의 가족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현대의 간호실무에서 간호사에 의한 대상자의 돌봄이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가족에 의하여 효율적인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출산과 관련된 전통적인 돌봄은 대상자가 속한 문화의 기층 구조에 따라 영향을 받아 돌봄의 구체적인 행위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간호사가 중요하게 인식한다면, 임상실무에서 야기되는 대상자와 간호사의 괴리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모성간호 이론의 정립과 효율적인 실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현대 간호실무에서 출산 과정에 있는 대상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돌봄의 유형과 속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현대 출산 과정에서 가족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돌봄의 유형과 속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득희(1983), 부정에 대한 인식 및 의존형태의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1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p. 252.
- 강문정(1989), 일부 제주지역의 전통적 산후 건강관리 실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0), 일부 제주지역의 분만 중 전통적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제주간호 보건 전문대학 논문집, 제14집.
- 고성희, 조명옥, 최영희, 강신표(1990), 문화간호를 위

- 한 한국인의 민간 돌봄에 대한 연구, 출생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Vol. 20, NO. 3.
- 김광일(1972), 한국의 전통적 질병개념, 최신의학, 제 15권, 제 1호, p. 49.
- 김성례(1978), 한국 농촌의 전통의료 문화와 그 변화의 수용, 인류학논집, 제4집, 서울대인류학회, p. 46.
- 김정수(1975), 표준 본초학, 서울 : 진명 출판사, pp. 253-254.
- 박주봉(1978), 산모와 간호원이 본 선택된 산육기 간호 활동의 중요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간호학회지, 제 8권, 제 1집.
- 방매륜(1983),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 수 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안진(1980), 한국 전통 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정민사.
- 유철인(1983), 제주사람들의 문화적 정체감 주변사회에 있어서의 적응방식, 탐라 문화 제5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p. 78.
- 윤순영(1978), 현대 의료와 한국농촌의 의료문화, 이대 지역사회 보건위원회, pp. 79-80.
- 이광규(1986), 민속 사회의 연구 방법, 한국 민속학의 과제와 방법, 서울 : 정음사, pp. 252-254.
- _____(1984), 제주 연구의 현황과 전망 : 사회적 측면, 탐라문화 제 3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 연구소.
- 이규태(1976), 한국인의 토속적 병귀관, 의맥 제3권, 카톨릭의과대학, pp. 164-168.
- 이기욱(1989),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 문화 인류학, 제2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p. 310.
- 이부영(1973), 한국의 샤머니즘과 민속의학, 의맥 제8권, 카톨릭의과대학, pp. 164-168.
- _____(1978), 동양 의학의 氣 개념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22권, 제 9호, p. 50.
- 임동권(1976), 한국의 세시풍속, 서울 : 서문당, pp. 136-140.
- _____(1982), 한국 민속학 논고, 집문당, pp. 143-184.
- 제주도(1982), 제주도지 pp. 787-793.
- 제주도교육연구원(1983), 옛 제주의 민속, 세시풍속, 민요, pp. 14-27.
- _____(1982), 향토개관, pp. 23-26.
- 조혜정(1988), 한국의 남성과 여성, 문학과 지성사, p. 266.
- 최영희(1989), 문화적 측면의 간호, 간호 대학 학술 심포지움-간호학의 정립과 한국 전통 문화, 이화여자 대학교 간호 대학.
- 최인학(1986), 문화 인류학, 서문사.
- 카프라, F(1982), 새로운 과학과 문명이 전환, 이성범, 구윤석 역(1987), 서울 : 범양사출판부.
- 한상복, 이문웅, 김광익(1986),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24-32.
- 황도연(1980), 대역 진맥. 방약합편, 남산당, pp. 164-279.
- 현용준(1975), 제주도의 기층문화, 문화인류학 제7집, 1975. 12.
- Guillemoz, A(1975), “삼신 할머니-동해안의 한 어촌에서 신앙과 무가를 중심으로-” 문화인류학 제 7집, 1975. 12.
- Bonak, M.I.(1984), Essentials of Maternity Nursing, St. Louis : The C. V. Mosby Co.
- _____(1989), Maternity and Gynecologic Care. ST. Louis : the C. V. Mosby Co.
- Bull, M.J.(1981), Change in Concerns of First-time Mother After One Week at Home, JOGN Nursing, September /October.
- Deimer, T.T., et all(1984), Cultural Assessment : Content and Process, Nursing Outlook, Vol. 32, No. 2, March /April, p. 78.
- Dorothea Sich, Kim Young-Key(1978), A Study on The Childbearing Behavior of Rural Korean Women and Their Families, Transaction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53. pp. 33-42.
- Johnston, M.(1980), Cultural Variations in Professional and Parenting Patterns, JOGN Nursing, Vol. 9, No.1, January /February.
- Leininger, M.M.(1978), Transcultural Nursing : Concepts, Theories, and Practice, John Wiely & Sons, Inc.
- _____(1984), Transcultural Nursing : An Overview, Nursing Outlook, Vol. 32, No. 2, pp. 72-73.
- Liu, Y.C.(1974), Effects on Upright Position During Labor, American Journal of Nursing, December.
- Mareck, M.P.(1979), Postpartum Follow-up Goals and Assessment, JOGN Nursing, July /August, p. 214.
- Mckay, S.R.(1980), Maternal Position During Labor

- and Birth, JOGN, September /October.
- Nesson and May(1986), Comprehensive Maternity Nursing, Philadelphia : Lippincott Co.
- Newton, L.(1976), Cross-Cultural Perspective, Childbearing A Nursing Perspective, F.A. Davis Company, p. 103.
- Reeder, S.R., Mastroianni, L. and Martin, L.L (1983), Maternity Nursing, 15th ed, Philadelphia : J.B Lippincott Co.
- Robert, J.E.(1979), Maternal Position for Chidbirth : Historical Reviews of Nursing Care Practice, JOGN, May /June.
- Saunders, J.M.(1984), Cultural Assessment : Content and Process, Nursing Outlook, Vol. 32, No, 2, March /April, p. 78.
- Summer, G., Fritsch, J.(1977), Postnatal Parental Concerns : The First Six Weeks of Life, JOGN Nursing, May /June, p. 391.
- Sheehan, F.(1981), Assessing Postpartum Adjustment, A Pilot Study, JOGN Nursing January /February, p. 19.

- Abstract -

A Study of Traditional Childbearing Management in Cheju-Do

*Kang, Moon Jung**

Where people within a certain cultural sphere have formed their own peculiar cultural beliefs including health belief, health value and health practice, care-givers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health management as those practices exist in the

client's sociocultural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various caring behaviors in traditional childbearing management and ultimately to provide basic data for nursing practice and sustantive maternity nursing theory.

To investigated caring behaviors, the ethnographic approaches were used.

The fieldwork for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from December, 1991 to September, 1992.

The data collection method was used in-depth interview. The key informants were 19 womans aged from 60 to 84, and general informant was a native aged 50.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components of caring behavior included heeding, preventing from impurities, encouraging the power, praying, warming up one's body, enduring, helping, healing, resting, making preparations, utilizing mugwort, creating good blood circulation, tabooing, This components of caring behavior were 6 categories, making every effort, encouraing, contriving an easy labor, healing, making preparations, enduring, The prominent caring beehavior during childbearing process was making every effort.

In conclusion, for more effective childbearing management of care-givers must eliminate from their own minds 'primitive' or 'supertitious' attitudes toward traditional childbearing management. Also it is desirable that they establish Korean style nursing intervention along with modern scientific practices in conjunction with the traditional childbearing management.

* Dept of nursing, Hanla Junior College